

## 악관절의 기능과 이상에 관한 역학적(易學的) 해석

지규용<sup>1,\*</sup>, 이영준<sup>2</sup>

<sup>1</sup>동의대학교 한의학과 병리학교실, 한의학연구소, <sup>2</sup>이영준한의원, 턱관절통합의학연구소

### A Changeological Interpretation on the Function and Malfunction of the Oromaxillary Structure

Gyoo-yong Chi<sup>1,\*</sup>, Young Jun Lee<sup>2</sup>

<sup>1</sup>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sup>2</sup>Lee Young Jun Clinic of Korean Medicine, Institute of TMJ Integrative Medicine

In order to understand Changeologically on the meaning of FCST's TMJ (temporo-mandibular joint) treatment procedure, Yi, Shike, Bi, Gen trigrams concerning the jaw and change by treatment were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semiotic context of hexagon and holistic interpretation on disease. Yi is meant by jaw but actually indicates mouth made by maxilla and mandible, and it's characters are related with nourishing by aliment and words. But when we eat and speak in the daily life, jaw does not nourish properly it's own body by bad habit or postures. For the treatment of this ill state, there needs punishment and correction symbolized with Shike. Shike has fourth nine meaning obstacles between the two strong lines in the upper and lower end, and so it has the function of mastication and get rid of the fourth nine metaphorically indicating subluxation of axis using CBA and auxiliary measures of four movement or laughing methods. Bi expresses the achievement and effects of consecutive mastication process implicating normalized manifestation of jaw and its linked spinal function. Gen symbolizes removing selfish motive or partiality in advance and reaches the best state of the saint righteously self-nourishable human being.

**Key Words:** FCST, Yi, Shike, Bi, Gen trigram, Oromaxillary structure, Semiotic symbol

## 서 론

<周易>은 乾坤에서 坎離까지의 天道, 즉 천지자연의 변화이치를 다룬 것으로 알려진 上經 30卦와 咸恒에서 既濟未濟까지의 人事, 즉 人道와 萬物을 주로 다룬 34괘의 下經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周易>은 자연과 사회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이를 미루어 길흉을 占斷하는 책이지만 인체에 대해서도 많은 비유가 들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행위와 음식활동이라는 人事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을 맡고 있는 입(口腔)은 하나의 빈 공간으로서 그 실제 구조는 위턱과 아래턱이라는 구조물에 의해 수동적으로 형성된

다. 즉 상악의 하면이자 구강상부를 구성하는 경구개와 상하악의 치조를 제외하면 연구개와 하방의 舌面, 후방의 후두벽, 측방의 脣 등은 모두 연조직과 점막들로서 신축운동과 감각작용을 맡는다.

턱은 현재 해부학에서 上顎(maxilla)과 下顎(mandibula)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는 양 귀의 하방에서 만나 관절을 형성하며 입의 저작과 발화를 위한 운동을 起始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신경학적 이상과 그로 인한 병리적 영향을 분석하여 턱관절균형의학에서는 발병이론과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상하악과 악관절의 기능과 병리적 이상 및 치료과정들을 <周易>의 卦象에 의탁하여 易學的인 방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근거중심의학 관점에서 질병은 해부생리학적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질병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발생환경을 분석하면 인간의 삶의 내용인 음식과 수면습관 및 심리적 조건이나 일상생활 등에도 관련되는데,

투고일: 2017년 11월 29일, 심사일: 2017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5일

\*교신저자: 지규용, 47227,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로 52-57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Tel: 051-850-8659, Fax: 051-853-4036

E-mail: cgyu@deu.ac.kr

더 심층적으로는 또한 심리 내면에 잠재된 정신적·도덕적 측면과도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심층적 측면들이 윤리적 당위가 있거나 직접적인 함수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처해 있는 시공간적 환경에 따라 잠재적으로 다양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周易>의 관점을 이용하여 간접적·내재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턱과 관련된 주요한 과상인 頤卦와 噬嗑卦 및 그 변화와 관련된 山火賁卦 및 重山艮卦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본 론

### 1. 頤卦: 턱의 형상과 발병

<周易>에서 頤卦는 인체의 턱을 지칭하는 한자로서, 頤卦의 象인 ䷚는 위·아래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입(口腔)을 상징한다. 그래서 쾌락도 주로 飲食과 언어 및 氣化에 의한 정신적·육체적·자연적·사회적인 頤養에 관련된다. 그래서 程頤는 <周易傳義>에서 “괘가 위는 艮이고 아래는 震이어서 위아래의 두 陽爻가 가운데에 네 陰을 포함하고 있고,\* 위는 멈추고 아래는 동하며 밖은 충실하고 안은 비었으니, 사람의 턱의 象이다. 頤는 길러줌이니, 사람의 입은 마시고 먹어서 사람의 몸을 기르는 것이므로 頤라 하였다. …사람이 생명을 기르고 형체를 기르며 턱을 기르고 사람을 길러줌이 모두 頤養의 道이다. 운동하고 휴식함을 절도에 맞게 펼치는 생명을 기름이요, 음식과 의복은 형체를 기름이고, 위엄 있는 거동과 정의를 실행하는 것은 德을 기름이며,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칩은 사람을 길러주는 것이다.”<sup>1)</sup>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頤卦 卦辭를 보면 “頤는 貞하여야 길하니 길러주는 것을 살펴보고 스스로 입의 진실함을 구한다.”고 하였으니, 사람을 기르는 방법은 반드시 바르고 곧아야 하며 길러야 할 대상도 도리에 합당해야 하고, 길러주는 원천인 입은 먹고 말하는 본래의 직능을 수행함에 있어 진실하고 공정해야지 거짓이나 사사로운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공덕을 彖傳에서는 “天地가 萬物을 養育하고 聖人이 賢人을 길러서 萬民에까지 미치니 頤卦의 기르는 때가 성대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곧 턱이 음식저작과 언어활동을 통하여 생명을 기르고 사람을 기르는 기능과 덕성이 광대함을 의미하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삶에서 차지하는 턱(입)의 비중을 보여준다.

\*여기서 두 양효는 위아래 턱이고 네 陰효는 이빨이다. 턱은 說者에 따라 잇몸, 입술 등으로 보기도 하지만 陰효를 이빨로 보는 것은 동일하다. 南晚星, 鍾泰德 등이 그러한데 예를 들면 <易經通釋>에 “頤는 <說文>에 頤이라 하였으니 곧 口腔이다. 위아래의 두 陽爻는 입술이고 그 사이의 陰爻 배열은 이빨이니 모양이 입과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象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추론한다면, 上卦 六五 陰爻 두 획은 상악 左右切齒와 犬齒(前齒)이고 六四는 大小臼齒(後深)이며 이와 맞물리는 하악의 절치와 견치 및 구치도 下卦 陰爻 네 획에 대응시킬 수 있다.

大象傳에서는 頤卦(턱)가 이처럼 바르고 곧으며 돌이켜 살펴볼 수 있는(觀頤) 이유를 “山下有雷”, 즉 아래턱이 말하거나 먹을 때 움직이고(雷以動之) 위턱이 적절히 그쳐주기 때문(艮以止之)이라 하고 君子도 이러한 도리에 맞게 言語를 삼가고 飲食을 절제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실제 인간의 사회생활 속에서는 邪慾과 怠行이 膠着하여 길러주는 대상과 방법이 자기의 사사로운 관계에 의해 좌우되고, 스스로를 돌이켜 보기는커녕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自養하는 道理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爻辭를 보아도 凶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初九는 너의 신령한 거북이를 버리고 나를 보고서 턱을 길게 늘어뜨리니 흉하다고 하였다. 程伊川에 의하면 “거북이는 목구멍으로 숨을 쉬지 먹지는 않는 동물이니, 靈龜란 靈명한 지혜를 가져서 밖으로부터 길러질 필요가 없는 존재”임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 爻辭는 虛靈不昧한 자신의 本性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六四)이 가진 음식과 물질에 욕심을 내어 턱을 늘어뜨리고 침을 흘리며 妄動하는 상태이며 따라서 흉하다. 이는 六二와 六三에서도 마찬가지로 흉하다. 스스로 자신을 기를만한 역량과 신분이 되지 못하여 주변의 양육을 받고자 하나 응하는 곳이 없어 거꾸로 아래 사람에게 받거나(六二), 길러주더라도 中正한 도리를 거스르면서 하는 것(六三)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六四와 六五는 설사 자신이 스스로 기르는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주변의 도움에 호응하여 꾸준히 바르고 곧게 노력하여 가면 크게 이루지는 못해도 결국에는 길하게 된다. 예를 들면 “六四는 초구로부터 거꾸로 길러움을 받음이나 길하니 욕사가 마치 굶주린 범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형상으로 초구를 향하여 그 기르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 이어지면 허물이 없다.” 하고 “六五는 도리에 어긋나나 곧바르게 지켜 거처하면 길하다” 함이 그것인데 이는 正應(六四)하거나 得中하며 比應(六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周易>의 占辭들을 턱관절의 생리와 질환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아래턱의 운동은 욕망을 절제하고 때에 맞게 그칠 줄 알아야만 비로소 말이 신중하고 바름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음식을 저작하는 행위가 지나치지 않고 균등·공평하여 牙床과 齒牙가 바른 위치에서 유지될 수 있으며 이로써 자기의 신체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바르게 기를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음식이나 물질 등의 사리사욕이 앞서 動함이 태과하거나 급박하거나 편벽되면 음식저작과 언어 및 수면 등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상향진과 긴장 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위턱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나 주변의 호응을 받으며 順하고 바름을 유지해야 생리적인 頤養이 되는데, 만일 호응도 받지 못하고 順하지도 못하면 신체도 바르게 길러지지 못한다.

이처럼 頤卦(턱)가 바르고 곧게 지키며 스스로 절제하여 그치지 못하면 邪僻에 흘러 몸과 마음을 정상적으로 기르

지 못하며 안에서 病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自養의 道理가 행해지지 못하여 생긴 病弊를 고치려면 부득이 외부로부터의 懲戒와 矯正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것이 噬嗑卦이다.

## 2. 噬嗑卦: 턱의 교정과 치료

噬嗑의 卦辭는 “亨하니 獄을 씌이 이롭다” 하고, 彖傳에서는 “頤中에 物이 있는 것을 噬嗑이라 하니 噬嗑이 亨하다 함은 剛柔가 나뉘어 動하면서도 밝고, 雷와 電이 숨하여 밝게 드러남이니”...象에서 “先王이 이로써 刑罰과 法을 명백하게 알린다(詔勅)”고 하였다.

程伊川은 噬嗑卦(䷔)에 대해 설명하기를 “위와 아래에 두 剛爻가 있고 가운데는 柔하니...턱과 입의 象이고, 中虛한 가운데에 또 하나의 剛爻가 있는 것은 턱 속에 물건이 있는 象이다. 입 속에 물건이 있으면 위아래를 가로막아 합할 수 없으니 반드시 깨물어야 합해줄 수 있으므로 噬嗑이라 한다. 聖人이 卦의 象을 가지고 天下의 일을 추론하여 보니 입에서는 물건이 가로막혀 합하지 못하고, 천하에서는 굳센 가시나무(強梗)나 사악한 讒訴(讒邪)들이 사이를 막고 있으므로 천하의 일이 합하지 못하는 것인지라 형벌과 법칙을 써서 작으면 징계하고 크면 誅戮하여 이것을 제거한 뒤에야 천하가 다스려진다. 무릇 천하로부터 國, 家, 事에 이르기까지 화합하지 못하는 까닭은 다 ‘間隔’이 있기 때문이니 간격이 없으면 합한다...천하의 간격을 제거함은 刑罰을 씌에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噬嗑卦는 初九부터 六五에 이르기까지 어떤 난관과 역경이 있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일관되게 씹어서(噬) 刑獄의 이치를 적용하여 평정하면(闔) 无咎하거나 길하게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初九는 발에 차꼬를 채워 발꿈치를 상하나 허물이 없다 하고, 六二는 살을 씹다가 코까지 없애나 허물이 없다 하며, 六三은 마른 고기를 씹다가 독을 만나더라도 조금 부끄러우나 허물은 없다 하고, 九四는 뼈 붙은 마른 고기를 씹다가 금화살을 얻지만 어렵게 여기고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길하다 하며, 六五는 마른 고기를 씹다가 황금을 얻음이니 곧바르게 하며 위태롭게 여기면 허물이 없다고 하였다.

噬嗑하여 刑法으로 규제하는 중간과정에 숨어 있는 특성 및 자질을 살펴보는 방법인 互卦<sup>2)</sup>로 보더라도 水山蹇卦(䷦)인데 彖傳에 “蹇은 어려움이니, 험함이 앞에 있다” 하고, 卦辭에서 “蹇은 西南 坤卦의 도리로 함이 이롭고 東北 艮卦의 도리로 함은 불리하니 大人을 만남이 이로우며 바르고 굳으면 吉하다”고 하였다. 伊川의 주석에 근거하여 해석해 보면 噬嗑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蹇難) 때이니 平易한 곳에서 順하게 처함이 이롭고, 위험한 곳에 멈춤(止)은 이롭지 않으며...반드시 聖賢한 사람을 두어야 天下의 어려움을 건너갈 수 있음<sup>3)</sup>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위-아래턱의 실제 咀嚼하는 움직임과 그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 및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서합괘에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頤卦가 본래 턱(입)의 본래 형상이고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과 윤곽을 길러주는 덕성을 갖는 괘이지만 곧바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절제·유지되지 않으므로 邪慾과 악행이 개입되고 妄動하여 흉하게 되고 하였었다. 이처럼 입 안에 들어온 억센 음식물 혹은 사욕과 악행이 噬嗑 彖傳의 ‘物’이고 伊川이 말하는 ‘間隔’이며 ‘強梗’이다. 즉 頤卦의 六四가 動하여 九四로 바뀌면 噬嗑(之卦)이 되는데 이것이 초구와 상구의 입 안 가운데에 있으면서 초구와 상구가 서로 합해지는 것을 부당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처럼 음의 자리에 양이 와서 위아래 턱의 조화로운 저작기능을 못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씹어 없애야 할 대상이며 그래야만 본래의 頤卦로 복원된다. 그렇다면 陽強한 방해세력인 間隔으로 바뀐 원인은 自養하는 도리를 어기고, 慎言語·節飲食하는 攝生의 실패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치료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본래 상하악 교합운동이 정상적으로 절제를 유지할 때는 공간의 내부에서 陽強한 間隔이 없었으나, 일에 대한 욕심과 경쟁, 분노, 미움, 질투, 긴장, 흥분, 우울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자극은 턱관절 및 그에 연결되어 호응하는 주변의 咬筋, 側頭筋, 內外翼突筋, 頰筋, 前頸舌骨筋群, 胸鎖乳突筋, 皮下頸筋, 後頸筋群 등에 과도한 긴장과 수축을 일으키며 六四白齒部에 蹉跌이 생기고 턱의 교합운동에 부조화를 유발한다. 이것은 頤卦에서 아래턱의 움직임이 不中不正, 過亢하는데도 위턱은 이를 절제하여 그쳐주지 못하여 이로 인해 내부에 強梗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부정교합-악관절에 연계된 근조직 과긴장-頸部軸椎의 아탈구로 연결되는 척추 不整列이다.\* <素問 四氣調神大論>에 “天氣는 淸淨하고 光明하여 언제나 德을 감추어둔다”<sup>4)</sup>고 한 것처럼 軸椎가 정상적일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強梗이 되어 상하교합운동에 間隔을 만들고 그로 인해 신체가 바르게 頤養되지 못한다.

이때 이 強梗, 즉 부정렬된 척추를 矯正하여 ‘間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噬嗑卦의 刑獄法이 요구된다. 刑獄法이란 噬嗑卦의 上卦인 離火의 明皙한 지침에 따라서 下卦인 震雷의 運動이 일어나도록 규제하여 調節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FCST에서의 진단계측과 정밀한 교정 및 심신종합치료방법들이다. 치료가 완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구강 내부의 치아교합면의 균형과 근신경학적 이완 및 척추정렬 뿐만 아니라 邪慾과 경쟁 등에 기인한 부정적 심리들을 제거하고 心身과 氣血의 動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FCST에서의 네 가지 운동법과 바른 마음자세, 바른 식사습관, 웃음치료 등을 강조하는 것은 논리

\*物이 일차적으로 씹히지 않는 억센 음식물을 의미하지만 역으로 턱(이빨)이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強梗의 본질이므로 기능해부학적으로 보면 아탈구된 척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적으로 합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주도면밀하게 한다 해도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하여 수시로 곤경에 처할 수 있을 것인데(蹇), 이것이 계속되는 편차의 발생이다. 그렇지만 교정(噬嗑)에 대한 초지일관한 신념을 가지고 주변(大人)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치료과정을 끝까지 수행하여 強梗인 어긋난 축추를 제압하면 마침내 吉하게 될 것이다.

한편 上離下震의 과상에 의거하여 직관적인 해석을 하자면, 하늘의 이치에 대한 밝은 이해, 즉 FCST이론인 離卦와 그 이치를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위엄, 즉 환자의 근육과 골격을 動蕩시켜 調整하는 手法法인 震卦를 조합한 것이 噬嗑卦인 것이다. 그러나 剛柔가 각 3개씩인 과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獄事를 다스리는 기술은 너무 세지도 무르지도 않아야 한다. 반은 강하고 반은 부드러운 중용적 조작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 현대정치의 司法의 기능에 해당되는 噬嗑의 의미로 볼 때도 당연한 것이겠으나 외면적 威嚴에 근거한 祛邪와 규제라는 형이하적 방법을 넘어서, 심리 내면의 미세한 邪慾까지 제거하기 위해 마음을 끊임 없이 살피고(常惺惺) 放逸한 마음을 求하는 단계까지 밀고 나아간다면 誠敬이 常在하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自養하는 덕(입, 頤卦)의 본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3. 賁卦: 교정의 결과

<周易 序卦傳>에서 과의 차례를 설명하는 방법을 보면 주로 配合卦와 倒顛卦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序卦傳>의 賁卦(䷖)에 보면 “噬는 합함이니, 物이 진실로 합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賁卦로 받았으니 賁는 꾸밈이다.” 하였다. 이에 대해 伊川의 설명을 보면 “사물이 합하면 반드시 文彩가 있으니, 文은 바로 꾸밈이다. 사람이 모이면 威儀와 上下가 있고 사물이 모이면 次序와 行列이 있어서 합하면 반드시 文彩가 있으니, 賁卦가 噬嗑卦의 다음이 된 것이다. 卦가 산 아래에 불이 있으니 산은 초목과 온갖 사물이 모이는 곳인데 아래에 불이 있으면 그 위를 비춰서 초목과 낱알 물건들이 모두 그 광채를 입으므로 꾸며주는 象이 있다.”고 하였다. 즉 賁卦는 噬嗑의 倒顛卦이므로 噬嗑의 과정과 시기가 지나면 功業이 무르익어 그에 따른 변화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倒顛卦는 上下로 뒤집은 鏡對稱의 관계이므로 제삼자나 상대방의 관점에서 일의 진행과 경과를 살피는 방법이며 연속적인 입장일 수도 있다.<sup>2)</sup> 그러므로 噬嗑의 진행결과와 刑法의 규제가 지속되면서 상대에게 드러나는 효용을 미리 占斷하는 방법은 倒顛卦를 이용할 수 있다.

賁卦의 단전을 보면 “柔(--)가 와서 剛(一)을 꾸며주는 고로 亨하고 剛을 나누어 올라가 柔를 꾸며주는 고로 가는 것이 있음에 조금 이로우니 天文이요 문채나고 밝음에서 그치니 人文이다. 天文을 관찰함으로써 時의 변화를 살피

며, 人文을 관찰함으로써 天下를 교화하여 이룬다.” 라고 하였다. 오는 과가 무엇인지에 관해 程子와 朱子의 의견이 다른데, 程子は 地天泰卦로 보았고, 朱子は 山澤損卦에서의 六三이 賁卦의 六二로 와서 꾸미고 損九二가 賁卦六三으로 올라가서 꾸민 것이거나 혹은 既濟卦의 上六에서 와서 賁卦六五를 꾸미고 九五가 올라가서 上九를 꾸미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程子は 天文이라는 大義를 중심으로 본 것이고, 朱子は 彖辭에 정확히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효의 이동을 중심으로 상괘와 하괘를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어서 각자 의미가 있다. 다만 여기서는 大象에서도 “山 아래에 火가 있는 것이 賁니 君子가 이로써 庶政을 밝혀 감히 獄事를 專斷하지 않는다.” 한 것처럼 天文과 人文이 호응하고 있으므로 泰卦의 건곤을 취한다.

요컨대 무슨 과에서 왔든지 간에, 剛柔의 효가 서로 交錯하면서 꾸며줌으로써 아름다운 粧飾과 文彩를 이룬 것이 天文이니, 이는 顎關節矯正의 결과 상악악과 주변조직의 協和가 달성되어 서로를 빛내주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 처하여 그친 것이 人文이니, 이는 이러한 조화상태에 머물러 마음과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꾸밈이란 나라의 여러 정치 혹은 한 환자의 전체적인 생명작용을 받게 드러내어 때와 위치에 맞게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初九는 발을 꾸밈이니 수레를 버리고 도보로 걷는 것이고, 六二는 수염을 꾸밈이니 위와 함께 움직이며, 九三은 꾸밈이 윤택하니 길이 바르고 굳게 하면 吉하다.” 하고 上九까지 대체로 無咎하거나 吉하다. 이와 같이 단계별로 발을 꾸미고 턱에 있는 수염까지 문채가 나며 윤택하게 되는 것이 지속적인 FCST에서 턱관절에 대한 噬嗑치료과정의 결과이자 效應이다.

### 4. 艮卦: 심신수양의 최고 경지

噬嗑卦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제재수단과 정밀한 신체적 교정과 함께 마음의 이완을 통한 포괄적인 방법을 두루 동원하여 強梗을 제거하였고, 그 결과와 효용이 賁卦에 표현되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미세한 邪慾을 제거하는 성인의 誠敬의 심신수양의 최고경지에까지 도달하려면 幾微에서부터 알아차리고 慾動을 방지하여야 한다. <中庸> 經一章의 “君子는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고 듣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하며, 隱微한 것보다 드러나는 게 없으니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sup>5)</sup>한 것이 이런 의미이다.

이런 幾微의 때가 바로 初爻인데, 과상으로는 賁卦의 초효가 변한 之卦인 重山艮卦(䷳)이다. 艮卦의 과사를 보면 “그 등에 그치니 몸을 보지 못하고(不獲) 뜰을 지나가도 사람을 보지 못하여 허물이 없다” 하고, 彖傳에서도 “艮은 그침(止)이니 그쳐야 할 때는 그치고 가야 할 때는 가서 動하고 靜함이 때를 잃지 않아 그 道가 光明하다. 그칠 곳에 그침은 마땅한 곳에 멈추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止’의 덕성과 경지는 <大學> 經一章에서 “大學의 道는 밝은 德을 밝힘에 있으며 民을 친히 함에 있으며 至善에서 ‘그침’에 있다” 하고, 程子は 이 止에 대해 “반드시 여기(至善)에 이르러서 옮기지 않음이며 至善이란 明明 德하고 親民하는 事理들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天理의 지극한 경지로서 一毫라도 人欲의 사사로움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였다. 마치 至善에 대해 설명하는 <大學> 傳三章에서 “나라의 도성 千里는 民이 머무르는 곳(所止)”이라든가 “지저귀는 피꼬리가 울창한 언덕에 머무른다.”든가 “임금이 仁에 그치고 아버지가 사랑(慈)에 그침”은 모두 본래 자연히 그러한 것이지 억지로 인위적 노력으로 의도하여 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sup>6)</sup> 실제로 艮卦의 “初六은 발꿈치에 멈춤이라 허물이 없으니, 길이 바로 굳게 함이 이롭다.” 하고 象傳에서 “발꿈치에 그침은 바름을 잃지 않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賁卦 初九에서 “발꿈치를 꾸밈”과 정확히 대응한다.

伊川은 “몸을 보지 않는다”는 뜻을 “나를 잊음”이라 하고 ‘사사로운 나’가 없어야 그치는 것이지 ‘나’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뜰에 지나가도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뜰은 본래 집안의 좁은 곳이라 그 사이가 매우 가까우나 내가 등에 있으면 비록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도 보지 못함이니 外物에 구애되지 않으며 안으로 욕심이 싹트지 않도록 하여 이와 같이 그치면 그침의 道를 얻어 그침에 있어 허물이 없게 된다<sup>3)</sup>고 설명하였다.

象傳에서는 上下의 小成卦가 敵으로 應하여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상응관계인 爻位의 剛柔가 서로 정확히 같아서 서로 親狎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상대하여 머무르는 관계임을 가리킨다. 朱喜는 止의 의미도 卦象으로 설명하는데, “艮은 한 陽이 두 陰 위에 그쳤으니 陽이 아래로부터 올라가 위로 極에 이르러 그친 것이다. 山은 땅에서 위로 높이 솟은 모양을 취하였으니 또한 極에서 멈추어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라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모두 <大學>의 “至善에 머무름”과 <中庸>의 慎獨을 통하여 邪慾이 萌動하는 幾微를 알아차려 常惺惺하고 放心을 求하여 誠敬이 心身에 渾然一體가 되어 삶과 건강을 自養하는 聖人の 境地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 고찰 및 결론

<繫辭上傳>에 “聖인이 象을 세워서 뜻을 다 보이며, 卦를 陳設하여 감정과 행위를 다 보여주고, 글을 붙여 두어서 그 할 말을 다 밝히며, 일에 따라 變通해서 이로움을 다하며 鼓舞시켜 神妙함을 다하였다.”고 하였으니 주역의 본뜻은 卦의 象을 통하여 우선 알 수 있고, 다음으로 卦의 이름과 卦辭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次第를 둔 이유는, 朱喜의 설명에 의하면, “말로 전하는 것은 얕고 象이 보여주

는 것은 깊으니 一과 二의 두 획이 변화를 포함하여 다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周易>에서 덕과 입의 形象을 세워서 頤卦를 만들어 보이고 卦사로서 本義를 드러내며 실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관찰하여 吉凶과 變通하는 실정을 밝혀준 것은 그 중요성이 인간의 삶과 건강에서 하나의 기호적 의의를 가질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記號란 話者가 어떤 뜻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의 개체를 말하는데, 현재 국내의 기호학적 연구들\*에서도 <周易>의 卦상을 연구하는데 응용한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양자가 기호의 의미와 작용 및 발현과정 등을 밝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섭적 사유는 타당하다.

또한 <繫辭下傳>에서도 “包犧氏가…우러러 하늘의 象을 관찰하고 굽혀서 땅의 法을 관찰하며…가까이로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사물에서 취하여 이에 처음 八卦를 만들어 神明의 德性에 通하게 하고 萬物의 實情을 類別하였다.”고 하였으니 噬嗑은 그 象徵과 記號를 특히 턱관절의 작용 중에서 취하여 그 변화와 吉凶을 논한 것이며, 賁卦와 艮卦는 噬嗑하는 과정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變通과 鼓舞 등 일련의 계통적이고 연속적인 현상들의 각 측면을 보여준다.

턱관절균형치료학(FCST)에서 턱관절을 다루는 관점은 우선 한의학에서 有機體를 全一論의으로 파악하여 心身一元 혹은 形氣神一體의 관계로 파악하는 <內經>類의 思想에 기초하여 구조와 기능과 마음이 질병의 발생과 밀접하게 상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양턱관절은 환측관절 치돌기를 중심축으로 움직여 뇌척주를 조종하며 이로써 상중하단전 및 전신의 신경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균형의 중심점이다.<sup>7)</sup> FCST는 이러한 靜態的 均衡에서 더 나아가 性命과 知行合一의 측면에서 인간의 心慾과 愈行이 질병을 형성한다는 四象醫學的 이론을 원용하여 습관과 자세 및 섭생 등도 중요한 진단, 치료적 단서로 파악한다. 따라서 FCST가 가진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습관과 섭생의 이면에 잠재된 요소들까지 고려하기 위해서는 턱관절의 구조기능적 전일성의 분석과 진단 및 자율신경 등 마음상태변수의 개선과 함께 더 심층적이고 성찰적인 자기수양의 방법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점에서 FCST치료학과 치료기술은 서양의학의 기능해부학 범주에 속하는 applied kinesiology나 치과학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고정학적 스플린트치료술 혹은 일반적인 심리중재와도 명백하게 구별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기호학적 의미맥락과 인간의 질병이해에 관한 全一論的 시각에서, FCST의 주치료대상인 턱과 관련하여 실물과 그 기능의 상징인 頤卦와 噬嗑卦 및 그 변화

\*방인, 다산 정약용의 주역사전 기호학으로 읽다, 예문서원, 서울, 2014, 오택석, 은유와 유동의 기호학 —주역, 중국어문학지 37: 7-50, 2011, 김동주, 생물기호학의 가능성, 기호학연구 42: 7-22, 2015, 등의 책과 논문들이 있다.

와 관련된 山火賁卦와 重山艮卦를 중심으로 턱관절치료의 과정과 의미를 易學的으로 해석하였다.

頤卦는 한자의미로는 턱이지만 궤의 형상으로는 위-아래 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입(口腔)이며, 궤덕도 주로 飲食과 언어에 관련되어 있고, 기능적으로는 육체적·정신적·사회적인 頤養에 관련되므로 頤卦는 턱의 구조와 생리적 기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인간의 사회생활 속에서는 말하고 음식을 저작하는 턱의 운동에 邪慾과 안 좋은 습관 및 자세들이 일상화되어 바르게 自養하지 못하고 흉하게 된다. 이런 병리상태를 고치려면 부득이 외부로부터의 懲戒와 矯正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噬嗑卦이다.

噬嗑卦는 위와 아래에 두 剛爻가 있고 가운데는 柔하나 九四가 있어 턱 속에 장애물이 있어서 턱의 정상적인 咬合作用을 가로막는 형상이므로 형벌과 법칙을 써서 징계하고 제거하는 司法的 矯正機能 혹은 의학적 치료기능을 상징한다. 중간의 장애물은 상하악 교합운동(噬嗑)이 욕심과 분노, 질투, 긴장, 흥분, 우울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자극과 턱관절 및 그에 호응하는 주변 筋群들의 긴장과 수축에 의한 軸椎의 아탈구이다. 이를 교정하는 치료법이 利用獄法인데 互卦인 蹇卦로 볼 때 많은 저항이 있어 잦은 편차의 발생과 치료과정의 험난함이 예상되므로 턱관절치료를 위한 정확한 이론지식과 調整技術 및 심신종합치료법들을 剛柔가 相孚하도록 받은 강하고 받은 부드러운 중용적 방법으로 실

시하여야 함을 愼한다.

賁卦는 噬嗑의 倒顛卦로 지속적인 치료과정의 공덕과 결과 및 효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顎關節矯正의 결과 상하악과 주변조직의 協和가 달성되어 턱관절 및 척주기능이 서로를 빛내주어 병리가 정상화된 상태를 상징한다. 艮卦는 噬嗑의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신체적 교정과 마음의 이완치료에서 더 나아가 미세한 邪慾을 제거하여 發病의 幾微를 알고 慾動을 방지하는 誠敬的 수양법의 최고단계를 상징한다. 卦象으로는 한 陽이 두 陰 위에 있어 至善의 極點에 이르러 그쳤고, 두 艮卦가 상하로 완벽하게 敵應하여 사심 없이 삶과 건강을 自養하는 聖人の 境地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REFERENCES

1. 周易 附諺解 亨 周易傳義大全, 學民文化社, 1998:299-326, 329-356, 478-506.
2. 鍾泰德, 易經通釋, 正中書局, 1999:521.
3. 周易入門 2. 김수길, 윤상철 공역, 대우학당, 2004:125-128, 129-132.
4. 周易 附諺解 利 周易傳義大全, 學民文化社, 1998:147-177, 542-574.
5. 素問(全)上, 김달호 이종형 共編譯, 醫聖堂, 2001:36.
6. 大學中庸 附諺解 中庸章句大全, 學民文化社, 1998:36-42.
7. 大學中庸 附諺解 大學章句大全, 學民文化社, 1998:34-38, 70-78.
8. 이영준, 악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의학, 고려의학, 2007:211-218.